목포시, 올해 상반기 김 수출액 '전국 1위'

전년比 123% 늘어… 7691만달러
가공기업 지원·해외마케팅 집중
수산식품산업 고부가가치화 박차

목포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감도. /목포시

목포시(시장 박홍률)의 올해 상반기 김 수출액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의 상반기 김 수출액은 전년 상반기 대비 123% 증가해 7691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처음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시장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건강식에 대한 인식 또한 향상되면서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김은 올해 상반기 5억3000만 달러를 수출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 중이다.

목포시는 민선 8기 들어 김 가공기업에 다양한 지원과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및 홍보를 통해 김산업 육성에 집중하며 세계시장 주도를 준비해 왔다.

목포시는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사장 박홍률)를 전국 최초 해양수산부 제1호 김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김산업 특화 전략에 불씨를 당겼다.

센터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통해 'AI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판별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사업에 선정됐고, 앞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기업과 3년간 45억원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시는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한층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을 비롯한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의 중심에 지난 5월 말 착공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있다. 수산식품수출단지는 부지 28,133㎡의 대양산단 내에 사업비 1천13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6,612㎡로 2개동이 건립된다.

수산식품수출단지 내에 들어설 국제 마른김거래소도 목포시가 주력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마른김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마른김 시장을 주도할 거래소를 조성하게 되는데,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전국 최대 규모인 739.5㎡의 거래소와 국제회의실, 바이어 상담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마른김 거래의 유통 효율성 제고와 국내외 바이어를 위한 거래 구심점이 될 예정이다.

목포시는 고부가가치 김산업 특화에 차근차근 준비해온 덕에 2024년 상반기 김 수출액 역대 최고치 경신과 처음으로 전국 1위의 수출액 달성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2년간 고부가가치 김산업 육성에 노력한 결실이 나타나 기쁘다. 우리시 김산업 특화 도시의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도전과 도약으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산청군은 지난 22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복을만드는사람들 농업회사법인과 118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청군

산청한방항노화산단 118억 규모 투자

1.7만㎡ 부지에 2027년까지 투자
122명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일조

산청군이 산청한방항노화산단 투자 협약을 유치했다.

군은 지난 22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복을만드는사람들 농업회사법인(이하 복만사)과 118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조은우 복만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복만사는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일원 1만 7730㎡ 부지에 2027년까지 약 118억원을 투자하고 최대 122명의 인력을 채용한다.

협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청 청정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금액과 최다 고용 인원 창출이라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끈다. 산청군은 올해 상반기 전략사업담당관을 신설해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이번 투자 협약을 포함, 5개 업체 314억원의 투자 금액 유치 및 160여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이뤘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英 웰링턴칼리지 부산캠퍼스 설립 '맞손'

부산시, 외국 교육기관 유치 성과

부산시는 22일 오후 시청에서 영국 웰링턴칼리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웰링턴칼리지 인터내셔널 부산 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웰링턴칼리지 임원진,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시와 세계적인 명문 외국 교육 기관인 웰링턴칼리지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명지국제신도시에 '웰링턴칼리지 인터내셔널 부산 캠퍼스'를 설립하는데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박형준 부산시장, 펠리시티 컬크 웰링턴칼리지 이사. /부산시

이번 협약은 박 시장을 필두로 시가 세계적 명문 외국 교육 기관을 부산으로 유치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온 결실이다.

지난해 9월 박 시장이 부산을 처음 방문한 웰링턴칼리지 임원진과 면담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이후 디지털경제실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올해 상반기 영국 웰링턴칼리지를 직접 찾아 협의하는 등 부산캠퍼스 설립을 적극적으로 타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이강덕 '포항의 새로운 도약' 특별강연

〈포항시장〉

첨단산단 선정 등 성과 뽐내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2일 포항지역발전협의회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 및 포항시의 정회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강연에는 150여 명의 회원들이 자리했으며, 이 시장은 포항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며 강의의 첫 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선조들과 포항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견인한 제철보국 도시인 포항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지·바이오·에너지 신산업 도시로 성장 중이라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포항이 당면한 과제와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포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어려움 속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이차전지, 바이오 2개 분야에 전국 최초 지정된 것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선정 등의 성과를 이뤄낸 포항의 저력을 강조했다. /포항(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의령군, 유스호스텔로 지역경제 활성화

2026년 6월 준공 예정

경남 의령군에 유스호스텔이 생긴다. 의령군은 지난달 설계 공모를 마치고 내년 초 착공을 시작해 2026년 6월 유스호스텔을 준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의령 유스호스텔은 총면적 4000㎡, 지상 4층 규모로 37개 객실에 1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 회의와 학술대회 등을 열 수 있는 대회의장이 만들어진다. 위치는 의령읍 하리 옛 5870부대 5대대 부지로, 특히 연간 40만 명이 방문하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반경 1㎞ 안에 있다.

의령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한 71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166억원을 들여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

이번 유스호스텔 건립은 오태완 군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됐다. 미래교육원이 의령에 들어서는 게 확정되면서 외부에서 의령으로 온 학생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어 유스호스텔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태완 군수는 6년 넘게 흉물로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건물을 처리하고 미래교육원 주변 숙박시설이 없는 불편사항을 동시에 해결했다.

각종 대회·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의령친환경야구장은 동계전지 훈련장으로 급부상했지만, 숙박 문제로 매번 외면받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번 유스호스텔 건립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클 전망이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인니 조선해양 무역사절단 파견

경남도는 도내 조선해양분야 중소기업 10개사로 구성된 '2024 인도네시아 조선해양 무역사절단'을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 파견한다.

경남도는 아세안 수출시장의 잠재 바이어 발굴과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무역사절단에 참가할 도내 조선해양 기자재 제조 중소기업 10개사를 모집했다.

무역사절단 파견은 2019년 한(韓)·아세안 해사주간 행사에서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과 아세안 7개국 조선해양·방산 분야 협회 간 체결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는 6개국 바이어 10개사와 제품 전시회와 1대1 매칭 비즈니스 상담회를 가진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밀양시

지자체·대학 등 7개 기관과 협력

밀양시는 지난 22일 인제대학교 인당관에서 동부 경남 지방자치단체·대학 등 7개 기관과 함께 '동부 경남 지자체-대학 협력 및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경남 서부권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으로 소외감을 느껴온 동부권 3개 지역 지자체와 5개 대학이 모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나노·의생명·자동차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산·학 협력 촉진 등 동부 경남의 발전과 번영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함평군-aT

농식품 수출·저탄소 식생활 확산

전남 함평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지난 22일 함평군청에서 농식품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K-푸드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기술·정보 교류, 저탄소 식생활 동참으로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실천, 농수산식품의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소비 촉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이날 협약식에서 함평군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수출 지원을 건의하고 아울러 지속가능한 지구 및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함평(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영양군

공직자 청렴 토크콘서트

영양군(군수 오도창)에서는 「2024 공직자 청렴 토크콘서트」를 7월 22일(월) 14시부터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기존의 경직된 청렴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청렴 관련 문화공연을 즐기며 자발적 청렴마인드 고취와 조직문화 개선하고자 진행됐다.

영양군은 현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6월 영양군수를 포함한 간부공무원등 32명을 대상으로 '갑질 금지 교육' 및 '청렴 실천 서약식'을 통해 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024 공직자 청렴 토크콘서트를 통해 직원 여러분의 청렴성 제고와 부패 취약분야 개선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